

(문제 1) 맞춤법이 옳은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

- 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 ②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왠지 멋있어 보인다.
- ③ 살코기는 장에 졸여 먹고 창자는 젓갈을 담궈 먹는다.
- ④ 명절에 아랫사람들은 윗어른께 인사를 드린다.

(문제 1)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

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X) → **대가**(代價)(O), **치뤄**야
 ◆ ‘댓가’란 말은 없다. 대가는 대가(代價), 대가(對價), 대가(大家), 대가(臺駕), 대가(大駕), 대가(貸家) 등 많은 동음이의어가 있는데, 무조건 ‘대가’만이 옳다. < cf. ‘대가를 치러야 한다.’에서 ‘대가’는 긴소리와 된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대까]로 발음된다. >
 ◆ ‘치르다’는 ‘치러, 치르니’ 등으로 활용한다. < ‘치르다’는 규칙활용 중 ‘-’탈락 >
 ◎영보이 암기tip 1) 두더지게임을 할 때 **대가리**가 큰 두더지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 **대가리** - **대가** >
 ◎영보이 암기tip 2) 주말에도 열심히 피아노를 **치러** 다녀도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 피아노를 **치러** 다녀도 - 대가는 **치러**야 >

②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웬**지 멋있어 보인다. (O) < **왜**인지(O), **웬**지(O) >

③ 살코기는 장에 졸여 먹고 창자는 젓갈을 담궈 먹는다. (X) → **조려**(O), **담가**(O)
 ◆ 조리다: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 들게 하다. < 활용: 조리다, 조리어, 조려, 조리니 >
 ◎영보이 암기tip) 살코기는 장에 **조려** 먹읍시다**그려**. < **조려** 먹읍시다**그려** >
 ● 졸이다: ‘졸다’의 사동사로 ‘찌개를 졸이다 / 춘추로 장이나 젓국을 졸이다’ 등으로 쓰이거나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의 뜻으로 ‘마음을 졸이다 / 가슴을 졸이다’ 등으로 쓰인다. < 활용: 졸이다, 졸이어, 졸여 >
 ■ 담그다: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 < 활용: 담그다, **담가**, 담그니 >
 ◎영보이 암기tip) 레이디 **가가**는 젓갈을 **담가** 먹는다. < 레이디 **가가** - **담가** >

④ 명절에 아랫사람들은 윗어른께 인사를 드린다. (X) → **윗**어른께
 ◆ 어른은 위아래의 상대어가 없으므로 ‘**윗**어른’만이 옳다.
 ◎영보이 암기tip) **윗**어른의 모습이 아무리 **웃**기더라도 면전에서 기분 나쁘게 **웃**지 마라. < **윗**어른 - **웃**지 마라. > (문제 1) 정답: ②

(문제 2) ㉠ ~ ㉣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2)

㉠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흔**더이고.
 ㉡ 텡상(天上) **빅**옥경(白玉京)을 **엇**디혀야 **니별**(離別)하고,
 ㉢ 히 다 더 **저**문 날의 **눌**을 보라 가시**느**고. /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훈가마는 /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구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 …(중략)…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꺾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

- ① ㉠:사랑받음직 ② ㉡:다른 생각이 ③ ㉢:아양이야 ④ ㉣:반드시

(문제 2)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2)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훈더이고. <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다. >
 텃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니별(離別)하고, <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을 어쩌하여
 이별하고. >
 히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 해가 다 저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논고? >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 아, 너로구나, 내 사정을 들어 보오. >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훈가마는 < 내 얼굴 이 거동이 임께서 사랑받음직한가마는 >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 어쩌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여기시기에 >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 나도 임을 믿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 >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구똥똥디 < 아양이야 부리며 어지럽게 굴었던지 >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쩌 다른신고? >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 아, 허황된 일이로다, 이 임이 어디 갔는고? >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 잠결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로다. >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 차라리 죽어 없어져 지는 달이나 되어서 >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
 각시님 돌이야꺾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 각시님, 달은커녕 굶은비나 되십시오. >
 - 정철, 속미인곡 -

- ① ㉠:사랑받음직 ② ㉡:다른 생각이 ③ ㉢:아양이야 ④ ㉣:반드시

- ◆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
- ◆ 번드시: ‘환히. 뚜렷이’를 뜻하는 옛말이다.

* 속미인곡(續美人曲): 조선 선조 때에, 정철이 지은 가사. 작가가 참소를 받아 창평에 내
 려가 있으면서 지은 것으로, 임금을 천상에서 인연이 있었던 연인으로 설정하고 그 임을
 잃고 사모하는 여인의 심정을 두 선녀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사미인곡>의 속편으
 로 《송강가사》에 실려 있다. (문제 2) 정답: ④

(문제 3) 다음에서 설명한 '겸양의 격률'을 사용한 대화문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3)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원리는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의 격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우리 선조들은,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겸양의 격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① 가: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찌면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② 가: 정윤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놀이공원이나 갈래?

나: 놀이공원? 좋지. 그런데 나는 오늘 뮤지컬 표를 예매해 뒀서 어려울 것 같아.

③ 가: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군요. 죄송합니다.

④ 가: 유진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나: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 3)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3)

◆ 공손성의 원리: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중시하는 이론

1)요령의 격률: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2)관용의 격률: 말하는 사람의 혜택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3)찬동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4)겸양의 격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 >

5)동의의 격률: 화자와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의견 일치를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① 가: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찌면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 찬동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로 보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여(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말하고 있으므로 '찬동의 격률'을 사용하였다.

② 가: 정윤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놀이공원이나 갈래?

나: 놀이공원? 좋지. 그런데 나는 오늘 뮤지컬 표를 예매해 뒀서 어려울 것 같아.

◆ 요령의 격률: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 '놀이공원? 좋지. 그런데 나는 오늘 뮤지컬 표를 예매해 뒀서 어려울 것 같아.'로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뮤지컬 표를 예매해 뒀서 어려울 것 같아)하고 이익은 극대화(놀이공원? 좋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사용하였다.

③ 가: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군요. 죄송합니다.

- ◆ 관용의 격률: 말하는 사람의 혜택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 ◆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군요. 죄송합니다.'로 보아 말하는 사람의 혜택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극대화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관용의 격률'을 사용하였다.

④ 가: 유진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나: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 ◆ **겸양의 격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 >
- ◆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로 보아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으므로(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겸양의 격률**'을 사용하였다.

(문제 3) 정답: ④

(문제 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4)

-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가치관의 (㉠)을 초래하였다.
-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을 (㉡)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하려고 한다.

- | | | | |
|------|----|----|---|
| | ㉠ | ㉡ | ㉢ |
| ① 혼돈 | 지양 | 개발 | |
| ② 혼돈 | 지향 | 계발 | |
| ③ 혼동 | 지양 | 개발 | |
| ④ 혼동 | 지향 | 계발 | |

(문제 4)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4)

① 혼돈 지양 개발

- ◆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하였다.

1)혼돈(混沌): 混(섞을 혼, 오랑캐 곤) 沌(영길 돈, 내 이름 전). 발음: [혼:돈](긴소리)

a)의미: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 /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

- ◆ '混沌(혼돈)'은 '混(섞을 혼) 沌(영길 돈)'을 쓰는데, '混(섞을 혼)'에는 '彳(물 수)'가 들어가고 '沌(영길 돈)'에도 '彳(물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외국 물(彳: 물 수)의 무분별한 수입은 가치관의 混沌(혼돈)을 초래하였다.

2)혼동(混同): 混(섞을 혼, 오랑캐 곤) 同(한가지 동). 발음: [혼:동](긴소리)

a)의미: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여서 생각함. / 서로 뒤섞여서 하나가 됨.

- ◆ '混同(혼동)'은 '混(섞을 혼) 同(한가지 동)'을 쓰는데, '混(섞을 혼)'에는 '彳(물 수)'가 들어가고 '同(한가지 동)'에는 '口(입 구)'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입**(口: 입 구)을 벌리고 자다가 잠이 다 깨지 않아 입에 파리가 들어갔는지 모기가 들어갔는지 混同(혼동)을 일으켰다.

◆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을 (⊖**지양**)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1)止揚(**지양**): 止(발 지) 揚(오를 양).

a)의미: 더 높은 단계(段階)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피함’, ‘하지 않음’으로 순화.

◆ 止揚(지양)은 ‘止(발 지)’, ‘揚(오를 양)’을 쓰는데, ‘止(발 지)’에는 ‘上(위 상)’이 얼핏 보이고, ‘揚(오를 양)’은 ‘扌(손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백두산 **위**(上: 위 상)에서 **손**(扌:손 수)을 모아 남북 사이의 이질화를 止揚(지양)한다.

2)志向(**지향**): 志(뜻 지) 向(향할 향)

a)의미: 어떤 목표(目標)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b)영어사전: aim at(~을 겨냥하다)

◆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을 뜻하는 志向(지향)은 ‘志(뜻 지)’, ‘向(향할 향)’을 쓰는데, ‘志(뜻 지)’에는 ‘心(마음 심)’이 들어가고 ‘向(향할 향)’은 ‘口(입 구)’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평화(平和) 통일(統一)을 志向(지향)할 때에는 **마음**(心: 마음 심)과 **입**(口: 입 구)을 모아 열심히 하자.

* **동음이의어**

1)指向(지향): 指(손가락 지) 向(향할 향).

a)의미: 걱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 또는 그 방향.

b)예: 철수는 고향(故鄉) 가는 길을 잃고 지향(指向)없이 헤매다.

◆ ‘걱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지향(指向)’은 ‘指(손가락 지)’를 쓰는데, ‘指(손가락 지)’에는 ‘扌(손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철수는 고향(故鄉) 가는 길을 잃어 **손**(扌: 손 수)을 벌리고 指向(지향)없이 헤매다.

◆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1)개발(開發): 開(열 개) 發(필 발).

a)의미: 토지나 천연자원(天然資源) 따위를 유용(有用)하게 만들. / 지식(知識)이나 재능(才能) 따위를 발달(發達)하게 함. / 산업(產業)이나 경제(經濟) 따위를 발전하게 함. / 새로운 물건(物件)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2)예: 택지 開發(개발), 신제품 開發(개발), 기술 開發(개발), 유전(油田)을 開發(개발).

3)영어사전: develop(발달(發達)시키다, 개발하다), development(발달, 성장(成長), 개발), exploit(이용(利用)하다, 개발하다), exploitation(착취(搾取), 개발)

◆ 開發(개발)은 ‘開(열 개) 發(필 발)’을 쓰는데, ‘開(열 개)’에는 ‘开(열 개)’가 들어가고 ‘發(필 발)’은 그 자체를 쓴다.

☺**영보이 암기tip**) 택지 開發(개발)시대가 **열렸다**(开: 열 개).

★ **헛갈리는 한자어**

1)계발(啓發): 啓(열 계) 發(필 발). 발음: [계:발, 계:발](긴소리).

a)의미: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

b)예: 창의성(創意性) 啓發(계발) / 소질(素質) 啓發(계발)

★啓發(계발)은 ‘啓(열 계)’를 쓴다. 또한 ‘啓(열 계)’는 ‘口(입 구)’가 들어있다.

☺영보이 암기tip) 계모임에서 엄마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의 창의(創意)성 啓發(계발)이 중요하다
요하다고 口(口: 입 구)를 모아 이야기하였다. (문제 4) 정답: ①

(문제 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5)

‘한글문학’ 또는 ‘한글소설’이란 뭘까? 손쉽게, ‘한글을 표기 수단으로 삼은 문학’, ‘한글로 쓴 소설’이라 말할 수 있을 테다. 한국 고전소설을 ‘한문소설/한글소설’로 나누는 관점에도, 사용하는 ‘문자’에 대한 의식이 개입해 있을 게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한 분류일까? 적어도, 자연스러운 분류일까? 그 관행 바깥에서 잠시만 생각해 보면,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은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 또렷해진다. 그것은 한문과 한글이 맞세울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문과 한글은 왜 맞세울 수 없는가? 한문은 고전중국어라는 자연언어나 그 자연언어로 짜인 텍스트를 가리키는 데 비해, 한글은 1446년에 반포된 표음문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 둘은 층위가 크게 다르다. 한글과 맞세울 수 있는 개념은 한문이 아니라 한자다.

그러니까 한문소설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한글 소설’은 아예 성립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있더라도 거의 쓸모없는 개념이다. ‘한글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개념인 것은, ‘로마문자소설’이나 ‘키릴문자소설’이 성립될 수 없거나 거의 쓸모없는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은 ‘한글로 창작한다’거나 ‘한글로 번역한다’는 표현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어떤 문자로 ‘표기’하거나 ‘전사’할 수는 있지만, ‘창작’하거나 ‘번역’할 수는 없다. 적어도 표준적 언어 사용에 따르면 그렇다. 텍스트를 짜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의 표현은 ‘한국어로 창작한다’거나 ‘한국어로 번역한다’로 고쳐져야 할 테다. 흥길동전은 한글로 창작된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로 창작된 소설이고, 본디 한문으로 창작된 설공찬전은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고전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니까 효시든 아니든 ‘흥길동전’은 _____.

- ①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고, 따라서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 ② ‘한국어소설’이 아니라 ‘한글소설’이고, 따라서 ‘한국어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학’에 속한다.
- ③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되 ‘한국어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학’에 속한다.
- ④ ‘한국어소설’이 아니라 ‘한글소설’이되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문제 5)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5)

①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고, 따라서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 (O)

◆ ‘그러니까 한문소설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한글 소설’은 아예 성립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있더라도 거의 쓸모없는 개념이다. ~ 이것은 ‘한글로 창작한다’거나 ‘한글로 번역한다’는 표현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뜻한다. ~ 텍스트를 짜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의 표현은 ‘한국어로 창작한다’거나 ‘한국어로 번역한다’로 고쳐져야 할 테다. ‘홍길동전’은 한글로 창작된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로 창작된 소설이고, 본디 한문으로 창작된 ‘설공찬전’은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고전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다.’로 보아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은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국어소설’이고, 따라서 ‘한글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문학’에 속한다.’라 할 수 있다. (문제 5) 정답: ①

(문제 6)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6)

- ① 계속되는 폭우로 마을 입구의 다리가 崩塊되었다.
- ② 이 일은 迅速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③ 나의 실수에 대해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詐過했다.
- ④ 이번 고적 踏事는 영남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문제 6)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6)

① 계속되는 폭우로 마을 입구의 다리가 崩塊되었다. (X) → 崩壞(붕괴)

1) 崩壞(붕괴): 崩(무너질 붕) 壞(무너질 괴, 앓을 회)
a) 의미: 무너지고 깨어짐 = 붕괴(崩潰), 붕퇴(崩頽)

◆ 崩壞(붕괴)는 ‘崩(무너질 붕) 壞(무너질 괴, 앓을 회)’를 쓰는데, ‘崩(무너질 붕)’에는 ‘山(되 산)’이 들어가고 ‘壞(무너질 괴)’에는 ‘衣(옷 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금덩이 옷(衣: 옷 의)을 입은 욕심쟁이 놀부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산(山:되 산)이 崩壞(붕괴)되었다. < cf. ‘다리’는 의미의 확대(책상다리, 돌다리, 상다리...) >

② 이 일은 迅速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O)

1) 迅速(신속): 迅(빠를 신) 速(빠를 속)
a) 의미: 매우 날쌔고 빠름. 발음: [신:속](긴소리)

◆ ‘迅速(신속)’은 ‘迅(빠를 신) 速(빠를 속)’을 쓰는데, ‘迅(빠를 신)’에는 ‘衄(쉬엄쉬엄 갈 착)’이 들어가고 ‘速(빠를 속)’에도 ‘衄(쉬엄쉬엄 갈 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거북이는 쉬엄쉬엄 가는(衄: 쉬엄쉬엄 갈 착) 것처럼 보였지만 성실(誠實)하고 迅速(신속)하게 토끼를 이겼다.

③ 나의 실수에 대해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詐過했다. (X) → 謝過(사과)

1) 謝過(사과): 謝(사례할 사) 過(지날 과, 재앙 화)
a) 의미: 자기의 잘못을 인정(認定)하고 용서(容恕)를 빌. 발음: [사:과](긴소리)

◆ ‘apology’를 가리키는 ‘謝過(사과)’는 ‘謝(사례할 사) 過(지날 과)’를 쓰는데, ‘謝(사례할

사)에는 ‘身(몸 신)’이 들어가고 ‘過(지날 과)’에는 ‘讠(쉬엄쉬엄 갈 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잘못을 했을 때 **몸(身: 몸 신)**이 피곤(疲困)하더라도 **쉬엄쉬엄 갈지언정** (讠: 쉬엄쉬엄 갈 착) 얼굴을 보고 직접 **謝過(사과)**해야 한다.

*** 동음이의어**

1)沙果(사과): 沙(모래 사) 果(실과 과, 열매 과)

a)의미: 사과나무의 열매.

◆ ‘사과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 ‘沙果(사과)’는 ‘沙(모래 사) 果(실과 과, 열매 과)’를 쓰는 데, ‘沙(모래 사)’에는 ‘彳(물 수)’가 들어가고 ‘果(실과 과, 열매 과)’에는 ‘木(나무 목)’이 들어간다.

cf. ‘課(매길 과)’가 아니라 ‘果(실과 과, 열매 과)’를 쓴다. ‘課(과정과, 매길 과)’는 ‘특별 소비세를 課稅(과세)하다.’ 등에 쓴다.

◆ ‘課稅(과세)’는 ‘課(공부할 과, 과정 과) 稅(세금 세, 벼를 탈, 기뻐할 열, 수의 수, 추복 입을 태)’를 쓰는데, ‘課(과정 과, 매길 과)’에는 ‘言(말씀 언)’이 들어가고 ‘稅(세금 세)’에는 ‘禾(벼 화)’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여봐라, **벼(禾: 벼 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지(有志)들에게 높은 課稅(과세)를 하라고 지방관에게 **말(言: 말씀 언)**을 전하라.

☺**영보이 암기tip** 이름 모를 **나무(木: 나무 목)**에 깨끗한 **물(彳: 물 수)**을 정성스럽게 매일 주니 沙果(사과)가 열렸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남남~ ☺

★ 먹는 ‘사과(沙果)’와 용서(容恕)를 비는 ‘사:과(謝過)’ 중 용서(容恕)를 비는 ‘사:과(謝過)’만이 긴소리로 난다.

☺**영보이 암기tip** 진심을 담아 **하루 종일 길게** 사:과(謝過)를 했더니 입이 다 부르텠다. 아이고, 쓰라려. ㅠㅠ

④ 이번 고적 踏事는 영남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X) → 踏査(답사)

1)踏査(답사): 踏(밟을 답) 査(조사할 사)

a)의미: 현장(現場)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調查)함. =답감(踏勘)

◆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을 가리키는 ‘踏査(답사)’는 ‘踏(밟을 답) 査(조사할 사)’를 쓰는데, ‘踏(밟을 답)’에는 ‘足(발 족)’이 들어가고 ‘査(조사할 사)’에는 ‘木(나무 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발(足: 발 족)**을 다쳤지만 **나무(木: 나무 목)** 막대기에 몸을 의지하며 고대 유적지를 踏査(답사)하였다.

*** 동음이의어**

1)答辭(답사): 答(대답 답) 辭(말씀 사)

a)의미: 회답을 함. 또는 그런 말. / 식장에서 환영사나 환송사 따위에 답함.

◆ ‘식장에서 환영사(歡迎辭)나 환송사(歡送辭) 따위에 답함’을 가리키는 ‘答辭(답사)’는 ‘答(대답 답) 辭(말씀 사)’를 쓰는데, ‘答(대답 답)’에는 ‘口(입 구)’가 들어가고 ‘辭(말씀 사)’에는 ‘辛(매울 신)’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며칠을 굶은 졸업생 대표(代表)가 재학생들에게 答辭(답사)하고 **신(辛: 매울 신)**라면을 허겁지겁 **입(口: 입 구)**으로 쑤셔 넣었다. 예구, 나도 먹고 싶다. 후루룩 ~

(문제 6) 정답: ②

(문제 7)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7)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앞에서 단기 기억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단기 기억은 그 기억 용량에서나 기억 시간 면에서 모두 그 한계가 뚜렷하다. 장기 기억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가정하자. 국민의례 순서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다. 이때 애국가 1절의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국가 1절의 가사는 이미 (㉠)하게 우리의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오류 없이 그 가사를 회상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애국가 2, 3, 4절로 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부정확해진다.

이처럼 어떤 기억은 평생 동안 유지되는 반면, 어떤 기억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되거나 부정확해진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을 시험 날까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자기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시험 전에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 시간에 회상해 내지 못해 안타까웠던 경험, 분명히 인사를 나눈 바 있는 거래처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해서 (㉢)스러웠던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 | | | |
|----------|--------|--------|
| ㉠ | ㉡ | ㉢ |
| ① 건실(健實) | 소거(消去) | 곤욕(困辱) |
| ② 견고(堅固) | 소실(消失) | 혼곤(昏困) |
| ③ 확고(確固) | 소멸(消滅) | 곤혹(困惑) |
| ④ 확실(確實) | 소진(消盡) | 혼란(混亂) |

(문제 7)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7)

① 건실(健實)	소거(消去)	곤욕(困辱)
② 견고(堅固)	소실(消失)	혼곤(昏困)
③ 확고(確固)	소멸(消滅)	곤혹(困惑) (O)
④ 확실(確實)	소진(消盡)	혼란(混亂)

◆ ‘이때 애국가 1절의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국가 1절의 가사는 이미 (㉠)하게 우리의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오류 없이 그 가사를 회상해 낼 수 있다.’로 보아 ‘확고(確固)와 확실(確實)’이 적절하다.

확고(確固): 태도나 상황 따위가 튼튼하고 굳음.
 확실(確實): 틀림없이 그러함.

◆ ‘어떤 기억은 평생 동안 유지되는 반면, 어떤 기억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되거나 부정확해진다.’로 보아 ‘소멸(消滅)과 소실(消失)’이 적절하다.

소멸(消滅): 사라져 없어짐.
 소실(消失): 사라져 없어짐. 또는 그렇게 잃어버림.

◆ ‘분명히 인사를 나눈 바 있는 거래처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해서 (⊖)스러웠던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로 보아 ‘곤혹(困惑)’이 적절하다.

곤혹(困惑):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 다른 보기 알아보기

1)건실(健實): 생각, 태도 따위가 건전하고 착실함 / 몸이 건강함 /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음.

2)견고(堅固): 굳고 단단함 /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이 확고함.

3)소거(消去): 글자나 그림 따위가 지워짐. 또는 그것을 지워 없앴.

4)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5)혼곤(昏困):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픔.

6)소진(消盡):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또는 다 써서 없앴

6)혼란(混亂):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문제 7) 정답: ③

(문제 8) 다음 글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언행에 부합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국가직7급 8월26 가책형 문8)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영금영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았다.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여쭙었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웁니다. 남의 아들 된 자들은 그 효성을 법으로 사모하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신룡과 짝이 되어,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처럼 하토의 천한 신하는 감히 그 바람 아래 서웁니다.” 범이 이 말을 듣고 꾸짖었다.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지난번에 내가 들으니 ‘유(儒)’는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에 나쁜 이름을 모두 모아서 망령되게도 내게 덧붙이더니 이제 낮간지러운 말을 하는구나. 그 말을 누가 곧이듣겠느냐?”

- 박지원, 호질 -

- ① 牽強附會 ② 巧言令色 ③ 名論卓說 ④ 橘化爲枳

(문제 8)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7급 8월26 가책형 문8)

◆ 호질(虎叱): 조선 정조 때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 호랑이를 통하여 도학자의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는 내용으로, ‘열하일기’에 실려 있다.

◆ <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았다. ~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 네가 평소에 천하에 나쁜 이름을 모두 모아서 망령되게도 내게 덧붙이더니 이제 낮간지러운 말을 하는구나. 그 말을 누가 곧이듣겠느냐?” >로 보아 북곽 선생은 평소에 호랑이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호랑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좋은 말로 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교언영색(巧言令色)이다.

① 牽強附會(견강부회): 牽(이끌 견/끌 견) 強(강할 강) 附(붙을 부) 會(모일 회)

1)의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 유의어 < 아전인수, 영서연설 >

1)아전인수(我田引水): 我(나 아) 田(밭 전) 引(끌인) 水(물 수)

a)의미: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2)郢書燕說(영서연설): 郢(초나라 서울 영) 書(글 서) 燕(제비 연) 說(말씀 설)

a)의미: 영(郢)나라 사람의 글을 연(燕)나라 사람이 설명(說明)한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끌어대어 이치에 닿도록 함을 이르는 말.

② 巧言令色(교언영색) (O): 巧(공교할 교) 言(말씀 언) 令(하여금 영(령)) 色(빛 색).

1)의미: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2)영어사전: insinuating(넌지시 비추는, 의심(疑心)스러운, 교묘(巧妙)하게 환심을 사는) countenance(얼굴표정, 지지(支持)하다), flattery(아첨)

③ 名論卓說(명론탁설): 名(이름 명) 論(논할 론(논), 조리 룬(윤)) 卓(높을 탁) 說(말씀 설, 달랠 세, 기뻐할 열, 벳을 탈)

1)의미: 훌륭하고 이름난 이론이나 학설(學說)

④ 橘化爲枳(굴화위지): 橘(굴 굴) 化(될 화, 잘못 와) 爲(할 위) 枳(탱자 지, 탕자 기)

1)의미: 회남의 굴을 회북에 옮겨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뜻으로, 환경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 변함을 이르는 말.

* 유의어 < 남굴북지, 강남굴화위지 >

1)南橘北枳(남굴북지): 南(남녘 남, 나무 나) 橘(굴 굴) 北(북녘 북, 달아날 배) 枳(탱자 지, 탕자 기)

a)의미: 강남의 굴을 강북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람은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착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江南橘化爲枳(강남굴화위지): 강남의 굴을 강북에 옮겨 놓으면 탕자가 된다는 뜻으로, 환경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 변함을 이르는 말. (문제 8) 정답: ②

(문제 9) 밑줄 친 단어가 다음에서 설명한 동음어로 묶인 것은? (2017국가직7급 8월26 가책형 문9)

동음어는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거나 역사적으로 기원이 다른데 소리만 우연히 같게 된 말들의 집합이며, 국어사전에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된다.

- ① 지수는 빨래를 할 때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다. / 이 일은 인부를 쓰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 ② 새로 구입한 의자는 다리가 튼튼하다. / 박물관에 가려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한다.
- ③ 이 방은 너무 밝아서 잠자기에 적당하지 않다. / 그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다.
- ④ 그 영화는 뒀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다. / 너의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내가 뒀를 봐주겠다.

(문제 9)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7급 8월26 가책형 문9)

◆ **동음어**는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거나 역사적으로 기원이 다른데 소리만 우연히 같게 된 말들의 집합이며, 국어사전에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된다. = **동음이의어**

● **다의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짐승의 몸통 아래에 붙어서 몸을 받치며 서거나 걸거나 뛰게 하는 부분’을 가리키지만, ‘책상 다리’, ‘지겟다리’ 처럼 ‘물건의 하체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이른다.

① 지수는 빨래를 할 때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다.

1)쓰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

이 일은 인부를 쓰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1)쓰다: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리다.

◆ ‘합성세제를 쓰다’와 ‘인부를 쓰다’의 ‘쓰다’는 ‘사용하다(use)’라는 의미상 서로 관련이 있고 소리도 같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서로 같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다의어**이다.

② 새로 구입한 의자는 다리가 튼튼하다.

1)다리: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

박물관에 가려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한다.

1)다리: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의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

◆ ‘의자의 다리’와 ‘한강 다리’는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고 소리만 우연히 같으며, 국어사전에도 또한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동음어**라 할 수 있다.

③ 이 방은 너무 밝아서 잠자기에 적당하지 않다.

1)밝다: 불빛 따위가 환하다.

그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다.

1)밝다: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알아 막히는 데가 없다.

◆ ‘방이 밝다’와 ‘계산에 밝다’는 의미상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소리만 우연히 같은 것이 아니며, 국어사전에는 서로 같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다의어**이다.

④ 그 영화는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다.

1)뒤: 일의 끝이나 마지막이 되는 부분.

너의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내가 뒤를 봐주겠다.

1)뒤: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이바지하거나 도와주는 힘.

◆ ‘영화는 뒤로 갈수록’과 ‘뒤를 봐주다’는 의미상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소리만 우연히 같은 것이 아니며, 국어사전에는 서로 같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다의어**이다.

(문제 9) 정답: ②

(문제 10) <보기>가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는? (2017국가직7급 8월26 가책형 문10)

< 보기 >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 진보는 주체와 주체 간의 더 큰 이해와 소통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곧 선(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본래 기술이란 사회의 변화나 인식론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망정 가치판단을 내포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사회의 기술들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 소통의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 마련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①

우리나라도 어느덧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IT 기술이나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술이 큰 폭으로 발전하였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할 기술적 진보는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서로 만나고 다양한 이슈에 동참할 수 있는 담론 공간의 마련이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사회나 정치 이슈를 주제로 활발하게 타자(他者)와 접하며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②

이에 따라 우리는 소통의 가능성을 넘어 그것을 현명하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고민이 불필요하게 생각되거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악성 댓글과 루머, 인신공격 등의 병리 현상은 철학이나 가치 부재의 기술 진보가 주는 위험성을 잘 드러내 준다. 우리는 기술 진보에 따라 확보된 수많은 소통 통로 속에서 그것을 주체와 주체 간의 참다운 만남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③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각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는 어떠한 것들일까? IT 또는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시켰다는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어느 한 기업가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장소에서 자사의 혁신적 제품은 인문학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즉 첨단 기술과 인문학의 관련성을 역설한 것이다.

④

(문제 10)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7급 8월26 가책형 문10)

◆ ‘ ~ IT 기술이나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술이 큰 폭으로 발전하였다. ~ 기술적 진보는 ~
담론 공간의 마련이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사회나 정치
이슈를 주제로 활발하게 타자(他者)와 접하며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이다.’로 보아 ①뒤에
와야 한다.

< 보기 >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 진보는 주체와 주체 간의 더 큰 이해와 소통 가능성을 마련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곧 선(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본래 기술
이란 사회의 변화나 인식론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망정 가치판단을 내포하지는 못하
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사회의 기술들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소통의 통로
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 소통의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 마련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 보기 >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 진보는 주체와 주체 간의 더 큰 이해와 소통 가능성을 마련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곧 선(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본래 기술
이란 사회의 변화나 인식론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망정 가치판단을 내포하지는 못하
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사회의 기술들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소통의 통로
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 소통의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 마련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 ‘이에 따라 우리는 소통의 가능성을 넘어 그것을 현명하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고민이 불필요하게 생각되거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악성 댓글과 루
머, 인신공격 등의 병리 현상은 철학이나 가치 부재의 기술 진보가 주는 위험성을 잘 드러
내 준다. 우리는 기술 진보에 따라 확보된 수많은 소통 통로 속에서 그것을 주체와 주체
간의 참다운 만남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로 보아 ③앞에 와야
한다. (문제 10) 정답: ②

(문제 11)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1)

- ① 형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안절부절못했다.
- ② 학부모 간담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③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④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나에게는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심미안이 부족하다.

(문제 11)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1)

- ① 형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안절부절못했다. (O)
- ◆ 안절부절못하다: (동사)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 ◆ ‘안절부절못하다’는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쓴다. < cf. ‘안절부절하다’는 말은 없다. >
 - ◆ 안절부절: (부사)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
- ② 학부모 간담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O)
- ◆ 약(約): (관형사)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강’, ‘대략’의 뜻으로, 그 수량에 가까운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 관형사이므로 앞뒤 모두 띄어 쓴다. >
 - ◆ 여(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여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접사(접두사, 접미사)는 앞뒤 모두 붙여 쓴다. >
 - ◆ 명(名): (의존 명사) 사람을 세는 단위. <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 ③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X) → 검토한바

 - ◆ -ㄴ바: (어미)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 어미는 앞말과 붙여 쓴다. >

cf. 바

1)바: (의존 명사)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 <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2)바: (의존 명사) 일의 방법이나 방도. < 어찌할 바를 모르다/나아갈 바를 밝히다/눈물 바를 모르다. /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3)바: (의존 명사)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이왕 산 중턱까지 온 바에 꼭대기까지 올라갑시다./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는 먼저 맞겠다. /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4)바: (의존 명사) 자기주장을 단언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 <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 ④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나에게는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심미안이 부족하다. (O)
- ◆ 만큼: (의존 명사)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주는 만큼 받아 오다. /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 어른이 심하게 다그친 만큼 그의 행동도 달라져 있었다./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 만큼: (조사)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나도 당신만큼은 할 수 있다. /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
- (문제 11) 정답: ③

(문제 12)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은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2)

- ① 힘들다, 작은집, 돌아오다
- ② 검붉다, 굳세다, 밤낮
- ③ 부슬비, 늦더위, 굶주리다
- ④ 빛나다,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문제 12)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2)

◆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어순이나 배열법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를 말한다. < 조사 생략 / 관형어가 명사 수식 / 연결어미 존재 / 명사와 명사의 결합 ... >

◆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어순이나 배열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합성어를 말한다. < 연결 어미의 생략 / 부사가 명사 수식 / 관형사형 전성 어미 생략 ... >

① 힘들다, 작은집, 돌아오다 (X) → 모두 통사적 합성어

◆ 힘들다: 힘(이: 조사) + 들다 - 조사가 생략된 것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 작은집: 작은(관형어) + 집(명사) - 관형어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돌아오다: 돌아 + 아(연결 어미) + 오다 - 연결 어미가 생략되지 않고 존재하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검불다, 굳세다, 밤낮 (X) → ‘밤낮’은 통사적 합성어

◆ 검불다: 검다 + 고(연결 어미) + 불다 - 연결 어미가 생략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 굳세다: 굳다 + 고(연결 어미) + 세다 - 연결 어미가 생략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 밤낮: 밤(명사) + 낮(명사) -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③ 부슬비, 늦더위, 굶주리다 (O) -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

◆ 부슬비: 부슬(부사) + 비(명사) - 부사는 일반적으로 부사, 형용사, 문장 전체 등을 수식하는데, 명사를 직접 수식하였으므로 우리말의 어법이 아니다. 따라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부슬부슬: (부사) 눈이나 비가 조용히 성기게 내리는 모양.

◆ 늦더위: 늦다 + 은(관형사형 전성 어미) + 더위(명사) -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생략되어 없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굶주리다: 굶다 + 고(연결어미) + 주리다 - 연결 어미가 생략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④ 빛나다,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X) → ‘빛나다’는 통사적 합성어

◆ 빛나다: 빛(이: 조사) + 나다 - 조사가 생략된 것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 보살피다: 보다 + 고(연결 어미) + 살피다 - 연결 어미가 생략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 오르내리다: 오르다 + 고(연결 어미) + 내리다 - 연결 어미가 생략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문제 11) 정답: ③

(문제 13) 높임법 사용이 옳은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3)

①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② 큰아버지, 오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③ 김 과장님, 부장님께서 빨리 오시라는데 오후에 시간 계십니까?

④ 철수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부모님께 여쭙어 보고 결정할게.

(문제 13)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3)

①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 → 뵙고

◆ 말씀: ‘말씀’은 높임말도 되고 낮춤말도 된다.

◆ 뵙다: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 ‘뵈다’보다 더 겸양의 뜻을 나타낸다.

cf. 객체 높임법: 높임법의 하나.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 ‘-술 -, -습 -, -줄 -, -줍 -, -술 -, -습 -’을 붙여 표현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하여 ‘뵙다’, ‘드리다’, ‘여쭙다’를 써서 표현한다.

② 큰아버지, 오늘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X) → 댁

◆ 댁: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말.

◆ 약주: 술을 점잖게 이르는 말.

◆ 모시다: ‘데리다’의 높임말 < 데리다: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다. >

③ 김 과장님, 부장님께서 빨리 오시라는데 오후에 시간 계십니까? (X) → 오시라고 하시는데 / 오시라시는데 오후에 시간 있으십니까?

◆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과장님과 부장님 모두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써서 ‘오시라고 하시는데 / 오시라시는데’가 적절하다.

◆ 그리고 시간은 직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 간접 높임의 대상이므로 ‘시간 계십니까?’가 아니라 ‘시간 있으십니까?’가 옳다.

④ 철수야,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부모님께 여쭙어 보고 결정할게. (O)

◆ 여쭙다: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린다.

◆ 객체인 부모님을 높여야 하므로 ‘**여쭙다**’를 올바르게 사용하였다.

◆ 객체 높임법: 높임법의 하나.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 ‘-술 -, -습 -, -줄 -, -줍 -, -술 -, -습 -’을 붙여 표현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하여 ‘뵙다’, ‘드리다’, ‘**여쭙다**’를 써서 표현한다.

(문제 13) 정답: ④

(문제 14)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 14)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다. 구청에서는 ㉠도로 노면에 노란색 띠줄을 표시하거나 ㉡어린이 보호 또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많은 날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예지력(豫知力)이 떨어져서 위급한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도로 노면'을 '노면'으로 수정한다.
- ② ㉡: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리고'를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③ ㉢: 중심 화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예지력(豫知力)'을 '추진력'으로 바꾼다.

(문제 14)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4)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도로 노면'을 '노면'으로 수정한다. (O)
 - ◆ 노면(路面): 路(길 노) 面(얼굴 면)
 - ◆ 노면(路面)에는 길(도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도로 노면'을 '노면'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옳다.
- ② ㉡: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리고'를 '그러나'로 수정한다. (O)
 - ◆ '어린이 보호 또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로 보아 앞 문장은 긍정적인 내용이지만(운전자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뒷 문장은 부정적인 내용이다.(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리고'를 '그러나'로 수정한다는 말은 옳다.
- ③ ㉢: 중심 화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O)
 - ◆ 이 글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과 운전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중심화제로 하고 있는데, '맑은 날'과 같은 기후 상태는 이글의 중심 화제에서 벗어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

- ④ ㉣: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예지력(豫知力)'을 '추진력'으로 바꾼다. (X)
 - ◆ 예지력(豫知力):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능력. / 미래의 일을 지각하는 초감각적 지각하는 능력.
 - ◆ 豫知(예지): 豫(미리 예, 펼 서) 知(알 지). 발음: [예:지](긴소리)
 - ◆ 豫知(예지)는 '豫(미리 예, 펼 서) 知(알 지)'를 쓰는데, '豫(미리 예)'에는 '豕(돼지 시)'가 들어가고 '知(알 지)'는 그 자체로 쓴다. < '智(슬기 지)'가 아니라 '知(알 지)'를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
 - ☺영보이 암기tip) 우리 농장 돼지들은(豕: 돼지 시) 자기가 언제 도살될지 아는(知: 알 지) 것 같다. 미안해, 돼지들아. 그리고 맛있는 삼겹살을 줘서 정말 고마워.
 - 추진력(推進力): 물체를 밀어 앞으로 내보내는 힘. /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힘.
 - ★ 문맥상 추진력은 어울리지 않다. '예지력'이 적절하다.

(문제 14) 정답: ④

(문제 1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5)

머귀 잎 지고야 알겠도다 가을인 줄을
 세우청강(細雨淸江) 서느럽다 밤 기운이야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 ① 이별한 입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 ② 반어법을 동원하여 가을의 정취를 잘 나타내고 있다.
- ③ 점강법을 활용하여 계절 감각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이별한 입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문제 15)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5)

머귀 잎 지고야 알겠도다 가을인 줄을 < 머귀 잎 지고서야 알았도다 가을인 줄을 >
 세우청강(細雨淸江) 서느럽다 밤 기운이야 < 가랑비 내리는 맑은 강이 서늘하구나 밤 기운이야>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 천리에 임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

- ① 이별한 입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X) → 이별한 입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별한 입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 ② 반어법을 동원하여 가을의 정취를 잘 나타내고 있다. (X) → 도치법(倒置法)
 - ◆ ‘머귀 잎 지고야 알겠도다 가을인 줄을 < 머귀 잎 지고서야 알았도다 가을인 줄을 >’로 보아 반어법이 아니라 도치법(倒置法)을 동원하였다.
 - ◆ 도치법(倒置法):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끌어내기 위하여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문장 표현법.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옷이.’ 따위이다.
 - ◆ 반어법(反語法):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 풍자나 위트, 역설 따위가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인색하다는 뜻으로 쓴 ‘참 푸지게도 준다!’ 따위이다.
- ③ 점강법을 활용하여 계절 감각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X) → 도치법(倒置法)
 - ◆ 점강법(漸降法)이 아니라 도치법(倒置法)을 활용하였다.
 - ◆ 점강법(漸降法): 크고 높고 강한 것에서부터 점차 작고 낮고 약한 것으로 끌어 내려 표현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수사법. < cf. 하강(下降):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옴 >
 - 점층법(漸層法):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하여 마침내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수사법.

④ 이별한 입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O)
 ◆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 천리에 임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로 보아 이별한 입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문제 15) 정답: ④

(문제 16) 밑줄 친 단어가 같은 품사로 묶인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6)

- ① 이것 말고 다른 물건을 보여 주세요.
 질소는 산소와 성질이 다른 원소이다.
- ②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떡국을 떠먹어 보았다.
- ③ 그 사과는 크고 빨개서 먹음직스럽다.
 아이가 크면서 점점 총명해졌다.

- ④ 김홍도의 그림은 한국적이다.
이 그림은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긴다.

(문제 16)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6)

- ① 이것 말고 다른 물건을 보여 주세요. - 관형사
◆ ‘다른’이 ‘물건’을 수식하고 있고 이 문장에서 ‘다른’은 ‘또[another]’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또한 이 문장에서 ‘다른’은 활용할 수 없으므로 관형사이다.
질소는 산소와 성질이 다른 원소이다. - 형용사
◆ 이 문장에서 ‘다른’은 서술성이 있으므로 형용사이다. 즉 ‘성질이 다르다[different]’는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형용사이다.

②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 동사
◆ 이 문장에서 ‘보기’는 명사처럼 보이지만 명사형 동사이다. 동사는 서술어 역할을 하므로 풀어 보면, ‘나를 보기가(look at) 역겹다.’인 것을 알 수 있다.
철수는 떡국을 떠먹어 보았다. - 동사(보조 동사)
◆ 떠먹어 + 보았다
본동사 보조 동사 < ‘떠먹다’는 ‘먹다(eat)’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동사 >
 ↓ ↓
 eat see(X) < ‘보았다’는 본래 의미인 ‘보다(see)’의 뜻이 없으므로 보조 동사 / 또한 보조 동사는 본동사의 품사를 따라가므로 ‘떠먹다’가 동사이므로 ‘보았다’도 동사(보조 동사)이다. >

- ③ 그 사과는 크고 빨개서 먹음직스럽다. - 형용사
◆ 크다: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키가 크다/눈이 크다/발이 크다/집이 크다/가구가 커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
아이가 크면서 점점 총명해졌다. - 동사
◆ 크다: (동사)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 <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착하고 바르게 커 주어서 고맙구나. >
④ 김홍도의 그림은 한국적이다. - 명사
◆ 한국적이다: 조사(이다)가 붙어 명사이다.
이 그림은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긴다. - 관형사
◆ 한국적 정취: ‘한국적’이 ‘정취’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문제 16) 정답: ②

(문제 17) 밑줄 친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국가직7급 8월26 가책형 문17)

對話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能力을 갖추는 것도 重要하다. 특히 ⑦圓闊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①共感하며 듣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상대의 처지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고 들을 때, 대화와 ②妥協을 통해 서로의 ③利害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 ② ㉡ ③ ㉢ ④ ㉣

(문제 17) 정답 및 해설 (2017국가직7급 가채형 문17)

① ㉠圓闊 (X) → 圓滑(원활)

1) 圓滑(원활): 圓(둥글 원, 화폐 단위 엔) 滑(미끄러울 활, 익살스러운 골)

a)의미: 모난 데가 없고 원만(圓滿)함. / 거침이 없이 잘되어 나감.

◆ ‘圓滑(원활)’은 ‘圓(둥글 원) 滑(미끄러울 활, 익살스러운 골)’을 쓰는데, ‘圓(둥글 원)’에는 ‘口(에워쌀 위)’가 들어가고 ‘滑(미끄러울 활, 익살스러운 골)’에는 ‘月(달 월)’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달(月: 달 월)처럼 포근하게 모든 백성을 **에워쌀**(口: 에워쌀 위) 수 있는 圓滑(원활)한 왕을 뽑아야 한다.

cf. ‘滑’은 ‘미끄러울 활, 익살스러운 골’ 등으로 소리가 난다.

1) 滑(미끄러울 활): 원활(圓滑), 윤활유(潤滑油)

2) 滑(익살스러운 골): 골계(滑稽)

② ㉡共感(공감) (O)

1) 共感(공감): 共(한가지 공) 感(느낄 감/한할 감). 발음: [공:감](긴소리)

a)의미: 남의 감정(感情), 의견(意見), 주장(主張)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 ‘共感(공감)’은 ‘共(함께 공) 感(느낄 감)’을 쓰는데, ‘共(함께 공)’은 그 자체로 쓰고 ‘感(느낄 감)’에는 ‘心(마음 심)’이 들어간다. < 憾(한할 감)이 아니라 ‘感(느낄 감)’이다. >

☺영보이 암기tip) 그는 국민들과 **함께**(共: 함께 공) 진실한 **마음**(心: 마음 심)으로 共感(공감)하는 대통령(大統領)이다.

③ ㉢妥協(타협) (O)

1) 妥協(타협): 妥(온당할 타) 協(화합할 협). 발음: [타:협](긴소리)

a)의미: 어떤 일을 서로 양보(讓步)하여 협의(協議)함.

◆ ‘妥協(타협)’은 ‘妥(온당할 타) 協(화합할 협)’을 쓰는데, ‘妥(온당할 타)’에는 ‘女(여자 여)’가 들어가고 ‘協(화합할 협)’에는 ‘十(열 십)’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여자**(女: 여자 여)는 두 명이 모이든 **열**(十: 열 십) 명이 모이든 妥協(타협)하는 방법을 잘 안다.

④ ㉣利害(이해) (O)

1) 利害(이해): 利(이로울 이(리)) 害(해할 해, 어느 할, 어찌 아니할 갈)

a)의미: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발음: [이:해](긴소리)

◆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利害(이해)는 ‘利(이로울 이) 害(해할 해)’를 쓰는데, ‘利(이로울 이)’에는 ‘利(칼 도)’가 들어가고 ‘害(해할 해)’에는 ‘宀(집 면)’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집**(宀: 집 면)을 팔 때에는 **칼**(利: 칼 도)로 회를 뜨는 것처럼 신중(慎重)하게 利害(이해)를 따져 보아야 손해(損害)를 안 본다.

* 동음이의어

1) 理解(이해): 理(다스릴 이(리)) 解(풀 해). 발음: [이:해](긴소리)

a)의미: 사리(事理)를 분별(分別)하여 해석(解析)함. / 깨달아 앎. 또는 잘 알아서 받아 들임.

◆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을 가리키는 ‘理解(이해)’는 ‘理(다스릴 이(리)) 解(풀 해)’를 쓰

는데, ‘理(다스릴 이)’에는 ‘王(임금 왕)’이 들어가고 ‘解(풀 해)’에는 ‘角(뿔 각)’이 들어간다. < 邂(만날 해), 懈(게으를 해)가 아니라 ‘解(풀 해)’이다. >

- ◆ 邂(만날 해): 邂逅(해후: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에 다시 만남)
- ◆ 懈(게으를 해): 懈怠(해태: 게으름)
- ◆ 解(풀 해): 解弛(해이), 理解(이해), 讀解(독해)

☺영보이 암기tip) 고려의 왕(王: 임금 왕)은 사슴뿔(角: 뿔 각)이 건강에 왜 좋은지 理解(이해)하기 힘들었다. (문제 17) 정답: ①

(문제 18)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8)

롤랑 바르트는 기호의 제국 에서 “우리 얼굴이 ‘인용’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 등은 모두 미디어로부터 ‘복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가가 다른 책의 구절들을 씨앗글로 인용하는 일을 계기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듯, 우리는 남의 표정과 스타일을 복사한다. 이렇게 다른 것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는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성형의 트렌드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성형을 하는 사람은 쇼핑하듯 트렌드가 만든 미인 얼굴을 구매한다.

- ① 롤랑 바르트는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예찬론자이다.
- ②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대중화가 사람들의 미의식을 세련되게 했다.
- ③ 모방이나 복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④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대중화로 인해 성형 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문제 18)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8)

① 롤랑 바르트는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예찬론자이다. (X)

◆ ‘이렇게 다른 것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는 확산되고 있다.’로 보아 현대 사회의 현상을 말하고 있지만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예찬론자는 아니다. 또한 ‘롤랑 바르트는 기호의 제국 에서 “우리 얼굴이 ‘인용’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로 보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대중화가 사람들의 미의식을 세련되게 했다. (X)

◆ ‘성형을 하는 사람은 쇼핑하듯 트렌드가 만든 미인 얼굴을 구매한다.’로 보아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대중화가 사람들의 미의식을 세련되게 했다.’는 내용은 알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의 미의식을 세련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개성 없이) 남의 표정과 스타일을 복사한다고 했다.

③ 모방이나 복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O)

◆ ‘이렇게 다른 것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는 확산되고 있다.’로 보아 정답이다.

④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대중화로 인해 성형 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X)

◆ ‘모방이나 복제 문화의 대중화로 인해 성형 수술이 유행하고 있다.’는 중심 문장이 아니라 글의 단편적일 뿐이다. (문제 18) 정답: ③

(문제 19)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 19)

기생 생물과 숙주는 날을 세운 창과 무쇠를 덧댄 방패와 같다. 한쪽은 끊임없이 양분을 빼앗으려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방어하려 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기생 생물은 가능한 한 숙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 유리하지만 숙주가 죽게 되면 기생 생물에게도 오히려 해가 된다. 기생 생물에게 숙주는 양분을 공급해 주는 먹잇감인 동시에 살아가는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생 생물은 최적의 생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중용의 도’를 깨달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쯤 되면 기생 생물은 자신의 종족이 장기적으로 번성하려면 많은 양분을 한꺼번에 빼앗아 숙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빼앗아 숙주를 살려 둔 상태로 장기간 수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보통, 미생물은 인간과 처음 마주치게 되면 낯선 숙주인 인간을 강력하게 공격한다. 설상가상으로 낯선 미생물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의 면역계는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데 서투르기 때문에 낯선 미생물과 인간의 초기 전투는 미생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 2세기경 로마제국에서는 알 수 없는 역병이 두 번에 걸쳐 유행했다. 이 역병의 대유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로마는 4세기경 게르만족이 침입했을 때 이미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학자들은 지중해의 패권을 쥐었던 로마를 속으로부터 골병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을 홍역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유아 질환으로 자리 잡은 홍역의 위력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던 것이다. 소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홍역 바이러스가 처음 인간의 몸에 유입되었을 때 인간은 이에 대한 항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유행이 몇 번 지나가고 나면 점차 독성이 약해진다. 이는 미생물이 숙주를 장기간 착취하려고 한발 물러서는 한편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 내면서 미생물 퇴치에 한발 나아감에 따라 저울의 추가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 ① 숙주는 기생 생물의 서식처이다.
- ② 홍역은 로마의 전투력 약화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 ③ 홍역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숙주가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 ④ 대체로 미생물과의 초기 전투에서 인간은 일방적으로 패배했다.

(문제 19)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19)

- ① 숙주는 기생 생물의 서식처이다. (O)
 - ◆ '~ 숙주가 죽게 되면 기생 생물에게도 오히려 해가 된다. 기생 생물에게 숙주는 양분을 공급해 주는 먹잇감인 동시에 살아가는 서식처이기 때문이다.'로 보아 숙주는 기생 생물의 서식처이다.
- ② 홍역은 로마의 전투력 약화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O)
 - ◆ '이 역병의 대유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로마는 4세기경 게르만족이 침입했을 때 이미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학자들은 지중해의 패권을 쥐었던 로마를 속으로부터 골병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을 홍역으로 보고 있다.'로 보아 홍역은 로마의 전투력 약화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③ 홍역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숙주가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X)
 ◆ '대유행이 몇 번 지나가고 나면 점차 독성이 약해진다. 이는 미생물이 숙주를 장기간 착취하려고 한발 물러서는 한편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 내면서 미생물 퇴치에 한 발 나아감에 따라 저울의 추가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로 보아 홍역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 내면서 미생물 퇴치에 한 발 나아간다고 했으므로 숙주가 하는 역할은 미미한 것이 아니라 크다고 할 수 있다.

④ 대체로 미생물과의 초기 전투에서 인간은 일방적으로 패배했다. (O)
 ◆ '소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홍역 바이러스가 처음 인간의 몸에 유입되었을 때 인간은 이에 대한 항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로 보아 미생물과의 초기 전투에서 인간은 일방적으로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 19) 정답: ③

(문제 20)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20)

'우르릉~ 광!' 하고 천둥이 울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한다. 그래서 '뇌동(雷同)'이란 말이 생겨났다. 내가 우렛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하지만 반복해서 나의 잘못을 고쳐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뒤에야 몸이 조금 편안해졌다.

다만 한 가지 꺼림칙한 일이 있다. 내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화부(華父)가 지나가는 미인에게 눈길을 주는 일'이 나오는 대목을 읽고는 그 일에 대해 비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이니, 이것만은 스스로 미심쩍은 일이다.

일반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아주 기뻐하고, 비방하면 몹시 언짢아한다. 이것은 비록 우레가 칠 때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지만,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옛사람 중에는 깜깜한 밤에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

- 이규보, 뇌설 -

- 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필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인용해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문답 형식을 통해 독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고 있다.

(문제 20) 정답 및 해설 (2017국가7 8월26 가책형 문20)

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O)
 ◆ ' ~ 내가 우렛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하지만 반복해서 나의 잘못을 고쳐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뒤에야 몸이 조금 편안해졌다. ~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

고 고개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이니, 이것만은 스스로 미심쩍은 일이다. ~ 남이 나를 칭찬하면 아주 기뻐하고, 비방하면 몹시 언짢아한다. 이것은 비록 우레가 칠 때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지만,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로 보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필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며 제시하고 있다. (X)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한 곳은 찾을 수 없다.

③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인용해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X)

◆ '내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화부(華父)가 지나가는 미인에게 눈길을 주는 일'이 나오는 대목을 읽고는 그 일에 대해 비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로 보아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을 뿐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문답 형식을 통해 독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고 있다. (X)

◆ '옛사람 중에는 깜깜한 밤에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로 보아 의문의 형식으로 필자의 생각을 강화할 뿐 문답 형식이 아니다. (문제 20) 정답: ①

◆ 해설 관련 문의 & 기타 문의: <http://blog.naver.com/youngboy0710>